

강진군, 다산·영랑 동상 새 보금자리 찾는다

기존 위치 상징성 사라져...군, 주민 의견 수렴 후 이전

다산 정약용 선생과 영랑 김윤식 시인의 동상이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역민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나섰다.

두 동상은 현재 건립된 장소가 교통 구조 변화와 개발로 인해 상징성을 잃어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광주일보 2022년 8월 23일자 13면 보도>

강진군은 지난달 27일 시문학파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이날 다산·영랑 동상 이전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과거 강진으로 들어서는 관문에 건립되어 상징적 역할을 했던 다산 동상과 영랑 동상이 현재 그 기능과 상징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두 인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큰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다산·영랑 동상 이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과 추진위의 목적과 향후 계획 수립 등이 간담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추진위원장은 김승식 전 영랑기념사업회장이 추대됐으며, 참석자들은 다산·영랑 동상의 위치가 적절치 않으므로 이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추진위는 향후 군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 다산·영랑 동상을 이전할 계획이다.

김승식 추진위원장은 “동상 이전은 강진군 역사의 맥을 잇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차후 주민공청회를 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산·영랑 동상은 지난 1979년 주요 인사 32명이 참여해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산상은 구 다산로터리(현재 강진의료원 근처), 영랑상은 영랑로터리(현재 강진소방서 앞 영랑공원)에 건립됐다.

동상이 세워질 당시만하더라도 영랑 로터리와 다산 로터리는 강진읍으로 통하는 동쪽과 서쪽의 유



지난달 27일 시문학파기념관 세미나실에서 다산·영랑 동상 이전에 관한 간담회가 열렸다. <강진군 제공>

일한 관문이라는 상징성이 있었으나 다산상은 2009년 다산 로터리 자리에 강진의료원이 건립되면서 호수공원으로 이전됐고, 영랑상이 위치한 영랑 로터리도 그 일대 교통 구조가 바뀌며 상징적인

기능을 상실했다. 이에 지역민들이 추진위 구성, 두 동상의 이전에 힘을 보태면서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나주시 상·하수도료 인상

나주시가 19년 만에 상·하수도 요금의 단계별 인상을 결정했다.

나주시는 최근 소비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하수도 요금이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주시 상·하수도 요금은 장기간 생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 체계로 인해 연 평균 140억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 누적되고 있다.

나주시 소비재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결산 기준 나주시 상수도 생산 원가는 t당 1840원이지만 평균 요금은 725원으로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수익)이 39.4%에 그치고 있다. 하수처리비용은 t당 3368원인 반면 평균 요금은 240원에 불과해 현실화율이 7.1%로 만성 적자 누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소비재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나주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69.5%,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29% 달성을 장기 목표로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시는 소비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인상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나주시, 치매고위험군 관리 ‘스마트 시계’ 개발 속도

신체·정신건강성호 측정,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한양대 생존신호정보연구센터와 1차 실증 마쳐

나주시가 치매고위험군 어르신의 맞춤형 건강관리와 돌봄을 목표로 한양대학교 생존신호정보연구센터와 개발 중인 스마트 시계 개발을 위한 실증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나주시는 지난 9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양대 생존신호정보연구센터와 업무 협약을 통해 민선 8기 공약인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스마트 앱과 손목형 시계 형태의 웨어러블(wearable) 기기를 개발 중에 있다.

이 시계는 산소포화도, 심박이상, 활동량, 넘어지거나 기절 등 노약자 생체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다. 스트레스·우울 정도 등 정신 건강 상태도 측정,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조치와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다.

시는 지난 달 24일부터 28일까지 기기 개발을 위한 1차 실증시험을 수행했다. 실증 시험은 만60세 이상 75세 이하 세지면 백산

마을 어르신 16명, 빛가람동 LH5·6단지 아파트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기기·앱·관리자프로그램 시스템의 기초 성능을 확인하고 고령 대상자의 생체신호 및 스트레스, 우울정도 등 정신 건강 특성을 분석했다.

시는 1차 실증 결과를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개선, 2차 실증 시 65세 이상 어르신 40명에게 스마트 손목 장착형 기기를 적용할 계획이다.

서현승 나주시 보건소장은 “생활 밀착형 스마트 앱, 기기 지원을 통해 60세 이상 치매고위험군 어



한양대학교 생존신호정보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시계 개발을 위한 실증 작업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르신을 위한 고독사 예방,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요양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나주형 돌봄 체계를 구축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담양 ‘담빛영화관’ 1년만에 3만명 다녀갔다

3D 등 최신 개봉작 반값에 상영...지역민 사랑 한몸에

지난해 문을 연 담양군의 작은영화관, ‘담빛영화관’(사진)이 개관 1년 만에 3만 관객을 돌파했다.

담양군 청소년문화의집 1층에 위치한 담빛영화관은 2D와 3D 입체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최신 영상장비를 갖춰, 전국 동시개봉 최신 영화를 상영한다.

현재 지역민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서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과 학생, 군인 등 단체 관람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담빛영화관은 성인 6000원,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18세 이하 청소년 등은 5000원으로 일반영화관에 비해 절반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상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예매는 홈페이지(<https://olcinema.co.kr>) 또는 현장에서 가능하다.

군은 더 많은 지역민의 영화 관람 및 영화상영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12개 읍·면에 디지털사이니지(홍보디스플레이)를 설치할 예정으로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함평 월천항 풍경 함평군 손불면 월천항일대가 해질녘 낙조로 붉게 물들었다. 해제반도의 구불구불한 해안선, 함평만을 휘감은 아산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함평군 제공>

담양군, 모범음식점 35곳 선정

담양군이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방안으로 위생관리상태가 우수한 35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했다.

담양군은 지난 10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모범음식점과 신규 신청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현지 심사 등을 거쳐 군내 697곳 중의 5%에 해당하는 35곳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선진 좋은 식단 실천 여부, 고객 평판 및 민원 발생 여부, 주방을 포함한 식당구조와 청결 위생 환경, 종업원의 친절서비스 등을 심사했다.

군은 모범음식점에 표지판 부착,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 각종 위생용품 제공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홈페이지 및 홍보 책자를 통해 모범음식점을 소개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선정된 35개의 모범음식점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람객이 안심할 수 있는 청결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장흥군,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 총력

장흥군이 강도 높은 방역 활동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에 나선다.

장흥군은 최근 경북 예천과 충북 진천 등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오리 사육량이 많을 뿐 아니라 안양면에 전국 종오리의 90% 이상(연간 45만수)을 공급하는 원종오리 농장이 자리하고 있어 AI 방역이 중요한 지역이다.

군은 10월부터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비상연락망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흥군 가축시장 내 각종 특허출원 신식 설비(차량용 방역장치 및 고속자동분 등)를 갖춘 거점소독 시설을 24시간 운영 중이다.

또 농장 진입로 통제소 4개소 추가 설치로 3단계 소독(거점소독시설→통제소→농가) 및 철저한 차량·사람 이동통제를 통해 물샐틈없는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군은 가축전염병 위기경보가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된 점을 고려해 추수가 끝난 농경지, 저수지 인근 야생조류 서식 위험지역에 대해 군 방역차량 3대와 함께 장흥축협 공동방제단 8개반 차량 8대를 동원해 일제소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11월부터는 원거리 소독약 분사가 가능한 광역방제기를 인차하여 위험지역 농로는 방역 차량 3대가 교차 소독하는 등 유관 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총출동하고 효과적인 소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철새가 많이 유입되는 주변에 인근 주민과 방문객 출입을 자제시키고, 광역방제기를 동원해 주 2회 소독하는 등 철저한 사전 방역을 통해 AI 오염원이 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AI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신고는 장흥군청 축산사업소 가축방역팀(061-860-6711)으로 하면 된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백신산업특구 ‘세포치료제 산업화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24일까지...첨단바이오 약품 등 신약 개발 시설 지원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생물약연구센터(이하 진흥원)가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화순군에 따르면 진흥원은 오는 24일까지 화순백신산업특구 내 조성중인 ‘세포치료제 산업화 지원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

‘세포치료제 산업화 지원센터’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엑소좀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성장 및 육성 지원을 위한 GMP 생산시설로 크린룸 및 설비(공조기, 패스박스)를 임대 지원한다. 센터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cGMP,

kGMP, BL2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됐다.

위수탁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생산시설 활용지원은 신약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화순백신산업특구의 기존 인프라를 연계해 입주기업에게 다양한 기술사업화 지원을 계획 중에 있다.

해당 시설규모는 연면적 4343㎡의 지상 2층 규모이며, 독립적 GMP생산시설 3개실, OPEN LAB, 세포은행 등으로 구성돼있다.

입주기간은 최초 3년까지 가능하며 이후,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가능하다.

최초 입주기업은 GMP 크린룸 공사, 시설 벨리데이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본 시설 및 설비에 대해 대면설명을 진행하니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입주기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과 생물약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입주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